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4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을 1-0으로 꺾은 가운데,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 7년만에 UEFA 챔스 우승

〈유럽축구연맹〉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과 결승전서 1-0으로 이겨

2012~2013 시즌 이후 정상 차지... 레반도프스키, 득점왕 올라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7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통산 6번째 우승이자, 유럽 축구 역사상 9번째 트레블 달성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24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킵슬리 코망의 결승골을 앞세워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을 1-0으로 꺾었다.

2012~2013시즌 이후 7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다. 통산 6번째 우승이다.

앞서 챔피언스리그 전신인 유러피언컵을 통틀어 총 5차례(1973~1974, 1974~1975, 1975~1976, 2000~2001, 2012~2013시즌) 우승했다.

또 자국 리그, FA컵,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석권하는 트레블을 달성했다.

유럽 축구 역사상 통산 9번째 트레블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2012~2013시즌 이후 두 번째다. 트레블을 2회 이상 기록한 팀은 FC바르셀로나(2회·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다.

또 6번째 우승으로 레알 마드리드(13회·스페인), AC밀란(7회·이탈리아)에 이어

리버풀과 함께 최다 우승 공동 3위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축소됐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역대 처음으로 전승(11경기)으로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다.

PSG는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했지만 경험 많은 바이에른 뮌헨을 넘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0-0으로 팽팽한 후반 14분 키미히의 크로스를 코망이 헤딩 결승골로 연결해 대미를 장식했다.

골키퍼 노이어는 네이마르, 음바페가 이끄는 PSG의 막강한 공격을 상대로 선방쇼를 펼치며 우승에 일조했다.

공격수 레반도프스키는 비록 결승전에서 골을 넣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 15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뉴시스

## 도쿄 패럴림픽 개최 1년 앞두고 경기단체 77% "불안하다"

개최 여부에 "모르겠다"가 69%

일본 도쿄 패럴림픽이 24일로 1년을 앞둔 가운데 관련 경기단체들의 77%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자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도쿄 패럴림픽 관련 총 26개 단체 가운데 77%는 앞으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강화와 대표 선발 등에 '불안'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최 대회 개최"에 대한 불안이 58%, "해외 원정"에 대한 불안이 54%, "(선수) 대표 선발"이 35%였다. 장애 정도를 심사하는 "클래스 분류"도 31%였다.

26개 단체 가운데 25개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전 세운 '강화 계획'에 대해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개 단체는 무응답이었다.

아울러 도쿄 패럴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지를 묻자 "모르겠다"가 69%에 달했다. 이유로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확립 시기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 등이었다. "할 수 있다"는 23%에 그쳤다.

내년에 패럴림픽을 개최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58%가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응답은 42%였다. "재연기 해야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재연기 하면 선수의 의욕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뉴시스

## 전북 레슬링 '전국 최강'

원광대·전주대, 각각 자유·그레코로만형 우승 금메달 4개 모두 그레코로만서

전북도청 정진웅 그레코로만 63kg 은메달 획득

전북 레슬링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4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45회 KBS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도내 대학·일반부 선수들이 금메달 4, 은메달 5, 동메달 8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원광대와 전주대 레슬링팀은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각각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였다.

원광대는 이 대회에서 금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체대를 제치

고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전주대는 금메달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수확하면서 경성대를 누르고 그레코로만형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금메달 4개는 모두 그레코로만형에서 나왔는데 원광대 양시인과 이종진은 각각 77kg급 130kg급에서 최정상에 올랐고 전주대 김성민과 한운호는 60kg급과 67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북도청 레슬링팀 정진웅은 그레코로만형 63kg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4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유인택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은 치르지 않고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다.

전주대 레슬링부, 금 2·은 3 동 3개 획득 男대학부 종합우승

전주대 레슬링부(감독 박진규)가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남자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9일부터 7일 동안 강원 평창군에서 진행된 '양정도 올림픽 제패 기념 제45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전주대 운동처방학과 4학년 김성민 선수(60kg), 한운호 선수(67kg)가 금메달을, 3학년 권정울 선수(97kg), 1학년 유인택 선수(63kg), 정용규 선수(77kg)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어서 운동처방학과 2학년 한다호 선수(67kg), 김민준 선수(130kg), 1학년 윤건형 선수(82kg)가 동메달 획득했다.

특히, 한운호 선수는 결승에서 총복대를 상대로 허리치기 기술을 성공해 4대 0승리를 거두며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레슬링부를 승리로 이끈 전주대 김운호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대 운동처방학과 한운호 선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준비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낸 것 같다"라며 "올해 남은 시합에서도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김민준 선수(왼쪽)가 상대 선수와 레슬링 경기를 하고 있다.

전주대 박진규 감독은 "장마와 더위,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4학년 선수를 필두로 1학년 선수까지 모두 열심히 훈련해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실업팀으로 가는 4학년 선수를 비롯, 선수들이 지금처럼 최선을 다한다면 동문 유인택 선수를 잇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탄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